

종단쇄신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인사말씀

우리 모두의 신심과 원력으로 맞이하는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 종단 현안을 우선하여 진력을 다해주신 종단쇄신위원회 위원장 밀운 대종사와 원로스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벌써 일곱 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쇄신의제들을 찾아 소중한 의견들을 현실에 맞게 탁마해 오신 소위원회는 이미 스물 세 차례나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청정승가 공동체의 현대적 청규를 위해 청규제정위원회가 수차례 열려 이제는 어느 정도 내용과 틀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심과 원력의 노력들이 올 상반기에는 결실로 이어지고 한국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매년 다사다난 하지만, 특히 지난해는 종단 안팎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하고 실천에 분주했지만, 심대한 현안을 마주하고 우리는 참회와 쇄신, 그리고 안정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그릇된 관행에 대해 진정으로 성찰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러한 허물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뿌리부터 고쳐 나가기 위한 쇄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뼈아픈 인내와 자정능력을 발휘하면서, 과거 같으면 위기상황이 더 큰 혼란을 불러오던 전례에서 벗어나, 종단 안정을 찾으려는 모두의 발원속에서 서서히 쇄신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쇄신의 발판은 참회와 안정입니다. 쇄신위원회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종단은 더 큰 시련과 격랑으로 휩쓸려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을 묵묵히 추진하고 계시는 쇄신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단은 지난해 6월, 제1차 쇄신계획 발표를 통해 재정투명화의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어 종단쇄신위원회에서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비롯한 각종 선거제도의 개선, 승가공동체 청규의 제정, 승려의 노후복지 문제 등 굵직한 종단의 현안들에 대한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들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종단의 해묵은 과제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쇄신위에서 합리적인 방향과 골격을 잡아가고 있기에, 집행부는 종무행정 일선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이었습니다. 1세기가 과거와 미래로 나뉘는 분기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종단쇄신위원회의 활동은 그 분기점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쇄신위의 성취는 종단의 미래 50년의 향방을 좌우할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쇄신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집행부는 강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쇄신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가 한국불교 쇄신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2013년) 1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